

“네트워크적 영역성(Networked Territoriality)”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케일의 정치

Networked Territoriality and Politics of Scale

박배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geopbg@snu.ac.kr)

지난 10여년간 영미지리학계에서는 스케일을 인식론, 존재론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인문지리학 분야에서는 스케일의 사회적 생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케일이 어떻게 사회적 과정을 통해 물질적으로 또는 담론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각광을 받아 왔다. “스케일의 사회적 생산론”을 바탕으로, “스케일의 정치”라 불리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등장하였는데, 이 “스케일의 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획득을 위해 규모를 생산하고 변형하려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와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특히,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스케일 뛰어넘기(jumping of scale)”라 불리는 정치적 행위와 과정들이었다. 여기서 “스케일 뛰어넘기”란 특정의 사회적 세력들이 권력투쟁 과정 속에서 기존 스케일의 틀을 뛰어넘어 보다 넓거나 혹은 보다 좁은 새로운 스케일을 창출함을 통해 기존의 권력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지리학에서 네트워크적 인식론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간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스케일적 인식론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네트워크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최근의 논의들은, 스케일적 인식론이 사회적 관계의 수직화된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사고의 틀에 집착한 나머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의 수평적 확장성을 인식하는데 제한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혹자는 스케일 개념의 무용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스케일 개념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네트워크의 영역화 효과를 간과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네트워크적 영역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스케일의 정치”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까지 비판적 지리학의 연구들에서 영역과 네트워크는 서로 대립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영역이라는 개념은 특정 지리적 테두리 내의 통합성, 폐쇄성,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정체성 등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반면에 네트워크는 영역적 폐쇄성을 뛰어넘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연결성, 흐름, 탈영역화 등의 현상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네트워크와 영역성을 상호배제적이고 모순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기존의 인식론은 현실에서 네트워크적 연결이 그 밀도와 빈도에서 특정의 영역적 범위에서 더 높고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네트워크라는 것이 영역의 경계성과 폐쇄성을 약화시키는 “탈영역화”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더 영역적인 이해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묶어주는 “영역화”의 효과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와 영역성을 결합시키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적 영역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개념은 1) 네트워크가 장소기반적 이해와 맥락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2) 네트워크적 연결성이 영역적 이해와 정체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 “네트워크적 영역성”의 개념에서는 먼저, 네트워크는 무한한 수평적 확장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여러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장소적이고 영역적인 관계와 조건에 의해 그 형성과 발달이 제약 혹은 촉진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이와 함께, 특정한 정치-경제적 조건 하에서, 특정 지리적 스케일에 국지화된 네트워크적 연결성이 강화될 경우, 영역화된 이해와 정체성의 형성이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권력투쟁의 과정 속에서 특정의 영역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경우, 이 연대의 강화와 지속을 위해 영역화 전략이 사용되어 영역화 경향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적 영역성”의 개념은 “스케일의 정치”에서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측면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킨다. “스케일의 정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어떻게 권력투쟁의 과정 속에서 스케일이 담론적, 물질적으로 창출 혹은 재생산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네트워크적 영역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스케일을 인식할 경우, 네트워크적 관계를 바탕으로한 영역화의 과정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이 강조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상이한 영역적 이해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적 관계가 존재하면서, 서로 갈등, 경쟁,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영역적인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한 스케일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스케일의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